현대소설연구(제100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5.12.100.111

김주혜의 『작은 땅의 야수들』에 나타난 셀프 오리엔탈리즘적 민족의식*

김 윤 희** · 서 세 림***

요약

이 글은 김주혜의 『작은 땅의 야수들』에 나타난 셀프 오리엔탈리즘적 민족의식을 분석한다. 김주혜는 2024년 해당 작품으로 야스나야 폴랴냐 상(톨스토이 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작은 땅의 야수들』은 일제강점기부터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기생 옥희와 공산주의자 정호의 행보를 주로 보여준다. 특히 이 소설이 호랑이가 한국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를 강조하였기에 기존 연구들은 이 작품을 서발턴의 미시역사, 역사 서술 전략, 호랑이 메타포 등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김주혜가 한국의 역사를 선별적으로 활용하여 미시적 개인들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전달하였다는 점은 이 작품을 비판적으로 독해하게 만든다. 김주혜는 이 작품이 서양권에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계몽적인 소설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3·1운동 이후 나타나는 '침탈당하는 동양'과 '저항하는 동양', '신비로운 동양'의 이미지는 한국의 역사를 서양권에 익숙한 플롯으로 재배치하였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침탈당하는 동양'은 있되 그 침탈 주체(제국주의 국가)가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서서히 은폐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셀프 오리엔탈리즘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서양에 보여지기를 바라는 동양'이라는 관점에서 『작은 땅의 야수들』에 나타난 개개인의 서사가 어떻게 거대 역사, 민족의식을 위해 동원되는지를 살핀다. 레이 초우, 이지연 등은 셀프 오리엔탈리즘이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민족주

* 이 논문은 2025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제1저자,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의적 관점에서 나타남을 설명했다. 이때의 탈식민주의는 역설적으로 서양권에 익숙한 '침탈과 저항'의 이분법적 구도를 답습한다는 문제를 가진다. 따라서 이 글은 『작은 땅의 야수들』에서 동양의 수동성, 저항성 등으로 평면화된 역사를 비판하며 '세계 속의 한국'을 바라보는 다층적 방식을 제시한다. 이는 더욱 커져 가는 디아스포라 문학, '번역된 한국' 문학의 시대에 '우리', '민족'을 재고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김주혜, 『작은 땅의 야수들』, 셀프 오리엔탈리즘, 민족주의, 탈식민주의, 한국문학의 세계화, 번역, 세계문학

목차

1. 서론
2. 동양 주체의 저항성으로 환원되는 호랑이
3. 단일한 민족성을 위해 포섭되는 여성 타자
4. 은폐되는 외세(外勢)와 세계 속의 한국
5. 결론

1. 서론

김주혜는 1987년 인천에서 태어나 9살에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계 미국 작가이다. 그는 2016년 영국 문학 잡지 Granta에 단편소설 "Body Language"를 게재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그의 작품 중 책으로 출판된 것은 *Beasts of a Little Land(2021), City of Night Birds*(2024), *A Love Story from the End of the World*(2025)로 총 세 권이다. 이중 그의 첫 작품인 『작은 땅의 야수들(*Beasts of a Little Land*)』(2022)은 2024년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잇따른 '한국계 미국 작가의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이라는 타이틀로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1] 마침 노벨상 수상자

1) 박지영, "한국계 미국 작가 김주혜,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 『한겨레신문』, 게재일: 2024.10.13.(열람일: 2025.10.3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214.html.

와 같은 날에 국제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수상 작품이 한국 근대사를 다룬 소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김주혜는 수상 소감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과 연대감을 드러냈다.

최근 한국계 작가들이 국제무대에서 거론되는 경우가 많아지며 디아스포라 문학, 이민자 문학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작은 땅의 야수들』을 여타 이민자 문학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자면, 고봉준은 이민진의『파친코』와『작은 땅의 야수들』을 하위주체 문학으로서 분석하였다.[2] 그는 기생과 고아 인물을 근현대사의 주인공으로 두어『작은 땅의 야수들』이 국가적, 민족적 역사로부터 벗어났다고 평가했으나, 한편으로는 해방 이후의 역사가 요약적으로 다뤄진 점을 이 작품의 한계로 지적했다. 또 박정애는 태 켈러의『호랑이를 덫에 가두면』과『작은 땅의 야수들』을 비교하여 디아스포라 작가 소설에서 호랑이 메타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폈다.[3] 조미숙은『작은 땅의 야수들』의 서사 전략과 역사의식을 한국 작가인 한무숙의『역사는 흐른다』와 대조하여 분석하였다.[4] 그는 김주혜가 역사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반면 작품의 주제의식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점을 지적했는데, 이것은 주체적 인물들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개개인의 미시 서사를 역사로 불러들이는 전략에 해당한다.

개별 작품을 중심적으로 다룬 연구에서 박래은은 이 작품을 무위의 공동체 개념으로 설명하였다.[5] 그에 따르면 호랑이는 한민족의 공동체 의

2) 고봉준,「하위주체의 서사 전략과 역사 다시 쓰기 - 이민진의『파친코』와 김주혜의『작은 땅의 야수들』을 중심으로」,『비교한국학』31-2, 국제비교한국학회, 2023, 47-79면.

3) 박정애,「디아스포라 작가의 소설에서 호랑이 메타포의 활용 양상 - 태 켈러,『호랑이를 덫에 가두면』과 김주혜,『작은 땅의 야수들』을 중심으로」,『구비문학연구』71, 한국구비문학회, 2023, 41-80면.

4) 조미숙,「작은 땅의 야수들』에 나타난 역사소설 서사전략 연구 -『역사는 흐른다』와 비교를 중심으로」,『통일인문학』101,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5, 299-325면.

5) 박래은,「『작은 땅의 야수들』에 나타난 한반도 서사와 무위(無爲)의 공동체」,『국제한인문학연구』38, 국제한인문학회, 2024, 45-73면.

식을 상징하며, 기생 집단, 부랑아 집단, 지식인 계층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외존(外存)으로 작용하여 미완의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또한 장희동은 『작은 땅의 야수들』에 나타난 바다 유리, 담뱃갑, 이민 가방을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소(actant) 개념으로 분석했다.[6] 김유순은 여타 디아스포라 문학과 『작은 땅의 야수들』을 같이 다루며 작품에 나타난 거리, 제주의 바다 등 생명의 창조 공간에 주목했다.[7] 손혜숙은 작품 속 '걷기'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형상화되는 개인의 정체성과 타자와의 관계를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8] 이밖에도 담바에바 예브게니아는 『작은 땅의 야수들』의 러시아 수용과 번역을 살피며 디아스포라 문학이 세계화되는 방식에 주목했다.[9] 그는 특히 러시아 비평가들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해외에서 『작은 땅의 야수들』이 읽히는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작품이 번역된 것이 2022년인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선행연구의 축적은 김주혜와 『작은 땅의 야수들』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중 공통적으로 두드러지는 부분은 기생과 공산주의자라는 작중 주요 인물들의 행위를 한국과 그 역사 내에서 의미화한 점이다. 특히 상당수의 연구는 공산주의자 정호를 비유하는 호랑이가 한국적 배경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역사적, 문화적 근거를 들어 설득하고 있다. 이는 『작은 땅의 야수들』이 많은 지면에서 'K문학'으로 불리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한국계 미국 작가의 수상에 대해 한국문학의 영역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6) 장희동, 「역사와 개인 - 『작은 땅의 야수들』 에서의 물질 서사」, 『현대영미어문학』 42-4, 현대영미어문학회, 2024, 87-103면.

7) 김유순, 「미주·유럽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8) 손혜숙, 「김주혜의 『작은 땅의 야수들』에 나타난 모빌리티 양상 연구」, 『어문논집』 103, 중앙어문학회, 2025, 161-186면.

9) 담바에바 예브게니아, 「한국 디아스포라 문학의 세계화 가능성 - 『작은 땅의 야수들』의 러시아 수용과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문화』 38,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25, 29-50면.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 소설은 한국 근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작가도 본인을 한국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10] 더욱 이러한 경향은 강해졌다.

다만 이러한 연구 흐름은 이민자 문학, 디아스포라 문학이 한국을 논할 때의 다층적 접근,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이 제한된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러한 관점에서『작은 땅의 야수들』이 서양 독자를 고려하여 전형적인 역사소설과 다른 전략을 구사하였고 이때 서사가 젠더화, 이분화된다는 점을 지적한 서승희의 연구[11]는 많은 참고 지점이 된다. 디아스포라 문학, 이민자 문학의 독해는 '세계'의 인정을 받은 그들의 문학을 '한국', '우리'의 영역에 두어 성역화하는 것이 아닌, '세계'와 '우리'의 관계, 더 자세히는 세계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우리'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나아가야 한다.

영어로 창작된『작은 땅의 야수들』의 예상 독자는 일차적으로 김주혜가 속한 미국 사회, 그리고 영미권 문화에 속한다. 위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김주혜는 '한국 작가'로서 타국에 '한국과 그 역사를 전달(번역)'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소설의 초기 배경이 바로 3·1운동이다. 김주혜는 일제에 저항한 독립운동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공산주의자, 기생, 하층민 등 많은 계급이 함께 했음을 보여주며 탈식민주의 미시 서사를 지향한다.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지점이

10) "제가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가야지 되는 건 제가 영어로 원서를 쓴 거는 맞지만 저는 스스로 저를 미국 작가라고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한국계 미국 작가라고 생각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엄연히 말해서 한국 작가인데 그게 제가 한국 소재를 소설로 써서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문학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한국 작가로서의 어떤 책임을 제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문학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톨스토이문학상 김주혜 "영어로 썼지만, 난 언제나 한국작가였다!"", 유튜브 비디오, 19분 33초부터 20분 08초까지, "CBS 김현정의 뉴스쇼", 게시일: 2024.12.20.(열람일: 2025.10.30.), https://www.youtube.com/watch?v=LNr4d7-7hMY&t=688s.)

11) 서승희,「멜로드라마로 다시 쓴 한국 근대사 – 김주혜의『작은 땅의 야수들』에 나타난 서사 전략 연구」,『한국문학이론과 비평』107,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5, 177-204면.

지만, 한편으로 3·1운동 이후의 서사에서 드러나는 민족의식과 동양관은 이 소설의 예상 독자를 염두에 둘 때 보다 비판적으로 독해할 필요가 있다.

작품은 1917년부터 1965년까지라는 혼동과 격변의 시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해방공간과 전쟁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한국 역사를 깊게 알지 못하는 영미 독자들은 한국에 대해 '식민지민의 저항성'이라는 평면적인 주제의식으로만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이러한 왜곡된 민족의식 속에서 해석되는 개개인들의 미시 서사는 결과적으로 '신비로운 동양'이라는 서구적 시선으로 재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미시적 개인의 서사를 세계에 소개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와 세계의 인정을 받는 한국이라는 거대 서사적 '소설의 효과'는 분리된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을 통치자인 서양의 절대성, 중심성으로부터 창조된(지배된) 동양적 세계로 설명했다.[12] 실제 동양과는 달리 이 창조된 동양 세계는 서양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따라서 오리엔탈리즘은 서양과 동양의 위계를 통해 후자를 지배, 조종, 통합하려는 목적의식 그 자체이다.[13] 한편 레이 초우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수동적으로 재현될 뿐인 동양'을 비판하며 '서구에 보이는 것을 의식하는 동양'을 중화권 영화감독들의 작품에서 발견했다. 그에 따르면 능동적인 눈과 수동적인 구경거리 사이의 분열이 '서양'과 '동양'의 이분법으로 강요됨에 따라 오리엔탈리즘은 해체되기는커녕 영속되고 만다.[14]

이지연은 이러한 '보이는 것을 의식하는 동양'에서 영향을 받아 셀프 오리엔탈리즘 개념을 정리하는데, 이것은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형성된 민족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15] 하지만 탈식민주의 저항정신으로서 민

12) 에드워드 W. 사이드,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9, 25면.
13) 위의 책, 35면.
14) 레이 초우, 정재서 역, 『원시적 열정』, 이산, 2004, 32면.
15) Ji-Yeon Lee, "Travelling Films: Western Criticism, Labelling Practice and Self-Orientalised East Asian Films."(PhD diss.,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2005), p.60.

족주의는 역설적으로 식민주의적 관점을 답습하게 되고, 따라서 민족주의를 식민주의의 반대 담론으로서 바라보는 시선에는 재고가 필요하다.[16] 다시 말해, 동양을 수동적으로 묘사하며 낭만화해왔던 서양의 독법에 대항하여 동양인 한국의 민족적 지위와 전통성을 부각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독해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때 역설적으로 한국 내의 미시 서사는 세계를 표방하는 서양과 그 반대 항인 동양 사이에서 소거되고 만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작은 땅의 야수들』이 어떻게 서구의 시선에서 읽힐지를 고려하여 작품의 표층적 의도와 구분되는 한민족의 셀프 오리엔탈리즘적 재현을 분석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먼저 작중 호랑이로 비유되는 정호와 그의 공산주의자 정체성이 어떻게 동양의 저항성으로 환원되는지를 살핀다. 이어 3장에서는 한민족의 단일화를 비판하며 이를 위해 동원되는 여성(기생)의 서사를 드러낸다. 그리고 마지막 4장은 작중 인물들을 한민족으로 봉합하는 외세의 시선이 은폐되며, 이에 따라 한국이 공시적 맥락을 잃은 채 '신비로운 동양'으로 형상화되는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동양의 행위 주체가 행하는 셀프 오리엔탈리즘은 한국문학의 세계화 담론에서 세계화의 방향성이 "폐쇄적인 민족주의나 자국중심주의적 관점을 고수하면서 세계 시장과 문학의 상징자본을 장악하겠다는 논리"를 보인다는[17] 비판과 조응한다. 따라서 이 글은 『작은 땅의 야수들』이 서구 문화권에서 어떻게 독해되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민자 문학, 디아스포라 문학이 형성한 한국의 정체성을 비판한다. 이는 나아가 '우리 문학'이라고 불러온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가진 폐쇄적이며 일방적인 세계화의 방향성을 재고하는 것으로

16) Ibid., p.62.

17) 노대원, 「한국문학의 세계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 세계라는 타자와의 대화를 위하여」, 『우리말 글』 71, 우리말글학회, 2016, 414-415면. 이때 "폐쇄적인 민족주의나 자국중심주의적 관점"은 서구중심주의의 '중심부-주변부'의 이분화 독법을 답습한 '우리'의 민족성 형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그렇기에 '우리/우리 문학'은 '세계'라는 중심부와 대결하는 한편 그것의 시선에서 인정을 요구한다.

이어질 것이다.

2. 동양 주체의 저항성으로 환원되는 호랑이

『작은 땅의 야수들』에서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주요 인물인 남정호는 거리의 부랑아였다가 공산주의자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특이점을 띤다. 다만 작중 공산주의 사상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는 인물은 그가 아니다. 정호는 3·1운동 이후 경성이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뉜 상황에서 공산주의자 이명보의 설득으로 그를 따르게 된다. 명보가 3·1운동에서 김성수의 물질적 도움을 받기 위해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는 소설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설파하는 인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 "쌀값이 오르는 건, 일본인들이 토지조사 사업을 벌여 한국 땅을 구석구석까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조상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거나 구두 약조를 통해 땅을 갖게 되어 문서로는 자기 소유임을 증명할 수 없었던 가난한 문맹 농민들이 평생 읽어온 제 농지를 하루아침에 빼앗겼기 때문이야. 소위 '소유자가 없는 땅'이 되어버린 많은 토지가 정부에 귀속되거나, 지주들 또는 일본인들의 법인회사에 매각되었지. 그래서 그 전까지 자기 토지를 소유한 소농이었던 사람들이 대지주에게 귀속된 소작농으로 전락해 버렸고, 그들이 정부에 세금을 내고 토지 임대료를 내고 농기구 사용료를 내고 관개수로 사용료 등을 다 내고 나면, 자기들이 먹을 식량을 살 돈조차 남아 있지 않아. (중략) 한편 한국 땅에서 생산되는 쌀 대부분을 손에 넣는 대지주들은 쌀 수요가 절박해질수록 가격을 높이고, 그 높아진 가격으로 더욱 부자가 돼. 그들의 곳간마다 천장까지 곡물 자루가 그득그득 차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네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나?"[18]

설명조로 길게 이어진 위의 대사는 성수가 쌀값 상승으로 인한 민중 시위를 신문의 사설란에서 확인하는 장면 이후에 나온다. 소작농과 노동자의 고통보다 "인기리에 연재 중인 통속 소설"에 더 큰 관심을 싣는 성수와 달리, 명보는 둘의 대화에서 자본계급으로서의 양심에 대해 논한다. 농민이 겪는 고통의 이면에 있는 일제의 억압, 소작농과 대지주의 대비로 요약되는 명보의 대사는 명백히 공산주의자의 신념을 가리키고 있다. 또한 이 장면은 일차적 예상 독자인 영미권의 독자들을 위한 역사적 해설로 기능한다. 김주혜는 위 장면 외에도 여러 차례 작중 인물들의 대사나 독백을 통해 당대 조선인과 일본인의 인식을 보여주는데, 다소 인위적으로 보일 정도로 길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즉, 김주혜는 가독성과 서사의 자연스러움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영미 독자들, 특히 공산주의에 익숙지 않은 미국 독자들에게 당시의 한국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독립에 기여했으나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개개인을 역사 속에 불러오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김주혜는 이 소설의 중요 포인트로 "남녀노소, 부유한 사대부부터 하층민들까지 힘을 모아, 피를 바쳐 이룩한 독립", 그리고 "그들의 단결을 가르게 된 이데올로기의 시초, 소련과 미국의 정책"을 꼽았다.[19] 후자보다 훨씬 강조되는 전자의 "남녀노소, 부유한 사대부부터 하층민들까지 힘을 모아, 피를 바쳐 이룩한 독립"은 공산주의 진영을 포함하며 더욱 풍성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이때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정호의 위치인데, 그가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는 이유는 세계의 흐름이나 농민과 대지주의 갈등,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분화와는

18) 김주혜, 박소현 역,『작은 땅의 야수들』, 다산북스, 2022, 128-129면. 이후 본문 내 한국어 번역본의 직접 인용은 괄호로 표기한다.

19) 김유순, 앞의 글, 169면.

직접적 연관 관계를 갖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291)으로 표현되는 그의 바람은 “그저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소박한 삶을 나누고 싶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이 소설은 좌파와 우파의 대립에 가려 있던 개개인의 소망을 주시하며 역사를 재해석한다. 이에 따라 김주혜가 의도한 “호랑이”의 의미 또한 거대담론화된 민족이나 특정 계급과는 멀어지는 듯하다. “호랑이”는 그 자체로 복수태이고 다양화된 개개인을 상징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작가의 의도를 배반하며 3·1운동 이후의 서사는 “호랑이”를 민족과 동양이라는 거시적 범주에서 해석하도록 유도한다.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작은 땅의 야수들』이 독립 이후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작가는 독립운동, 그리고 단결을 가르게 된 이데올로기를 다루면서도 “동포끼리 싸우게 된 6.25를 그리고 싶은 열정도 없었고, 또 꼭 무슨 필수 과제처럼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도 안했”다고 반박했다.[20] 하지만 해방공간과 전쟁기가 사라지면서 『작은 땅의 야수들』의 전체 흐름은 일제강점기부터 독립 직후, 그리고 박정희 정권으로 나뉘어 읽힌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부터 독립 직후에서 “호랑이”는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식민지민으로,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서의 “호랑이”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담론정치, 나아가 냉전 체제의 피해자로 해석된다.

일제강점기에 한정되어 만들어진 한국의 민족 정체성은 외세의 침략을 근거로 해서만 만들어지는 저항적인 정신과 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을 함축하게 된다. 실제로 한민족 공동체 의식은 일본과 서구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19세기 말에야 만들어지기 시작했다.[21] 이에 따라 작중 호랑이는 식민국-피식민국의 구도 내에서만 교환되는 보편적인 이미지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관련하여 김주혜는 ‘제2의 『파친코』’라는 찬사에 대해 영광을 표현하면서도 가족의 생존 서사와 대조하여 자신의 작품

20) 위의 글, 같은 면.

21) 고부응, 『초민족 시대의 민족 정체성』, 문학과지성사, 2002, 125면.

을 "나라를 위한 투쟁소설"이라고 설명했다.[22] 작가의 발언은 소설의 중요 포인트로 미시 서사를 꼽은 그 본인의 앞선 인용과 상충하며, 작가 스스로도 창작 단계에서 한국이라는 국가와 민족 자체를 주된 테마로 고려했음을 증명한다.

> 정호는 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총을 발사했다. 이어, 노인이 가슴께를 감싸 쥔 채 풀썩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다.
>
> "가, 조 동지, 얼른 가!" 정호가 오른쪽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질렀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터라 더는 인파 속에 몸을 숨길 수가 없었다. 정호는 경비대가 쫓아오는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달리기 시작했다. 귓가에 고함과 비명이 난무했다…… 그 모든 혼란의 소음을 뚫고 누군가 외쳤다. "대, 대한 만세!" 이어 또 다른 총성이 울렸다. (중략)
>
> 정호는 민첩하게 몸을 돌려 자신의 뒤쪽에서 접근해 온 남자에게 권총을 겨누었다. 초록빛 눈동자의 그 외국 남자는 어딘가 구슬픈 느낌을 주는 제나라 말로 빠르게 빠르게 지껄이더니 자신의 털모자를 벗어 정호의 가슴에 냅다 안겨주었다. 러시아인이었다. 정호는 사람들의 머리 아래쪽으로 몸을 숙인 뒤 쓰고 있던 중절모를 벗어 땅바닥에 버렸다. 손에 쥐고 있던 권총도 얼른 안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러시아인이 건네준 털모자를 썼다. (중략) 백화점 입구의 유리 회전문을 밀면서, 정호는 자신이 해냈음을 깨달았다. 그는 백화점 뒷문으로 무사히 빠져나와 얼음처럼 차가운 돌계단에 구겨지듯이 주저앉았다. "미안해, 조 동지. 정말 미안해."[23]

위의 인용은 정호가 공산주의자로서 가장 활약했던 임무인 1944년의 일본인 부총독 총살 장면이다. 그는 상해의 임시정부로 넘어가 조 동지와 함께 하얼빈역의 임무를 해내는데, 이것이 우려스럽게 읽히는 이유는 3·1

22) 이은정, "김주혜 "제2의 파친코 영광이지만, 나라 위한 투쟁 소설이죠"", 『연합뉴스』, 2022.09.28.(게재일: 2025.10.30.),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8131800005.

23) 김주혜, 앞의 책, 493-495면.

운동 이후 독립까지 공산주의자의 이름으로 정호가 해내는 유일한 일이 '피식민지민의 저항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의 역사를 볼 때, 1920년대 후반부터 국내의 민족운동은 좌파 공산 진영, 우파 민족 진영으로 나뉘었으며 이것이 심화되어 1940년대쯤에는 민족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24] 해방 직전의 민족운동 분열과 사회주의자들의 전향, 친일파 속출 등 복층적인 역사를 전달하는 대신 등장하는 총살 장면은 영미권 독자에게 억압적 식민국과 저항하는 피식민국이라는 평면적 구도를 각인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지연은 오리엔탈리즘적 독법이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셀프 오리엔탈리즘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특정 역사적 사건 소환과 그 오리엔탈(피식민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복층적 권력 관계들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25] 다시 말해, 그러한 '저항성'의 역사를 선두에 내세워 사회 내의 어떤 인물을 '민족'의 자리에 배치하고, 어떤 이를 그의 서사 아래 놓음으로써 서양에 보이는 동양의 민족성이 마련되는 것이다.[26]

더불어 영미권 독자를 고려할 때 정호의 이러한 행적이 "호랑이"로서 강조되며 나타나는 문제는 위의 장면에서 '한국'이 '동양'으로 표백될 위험지대에 놓인다는 점이다. 호랑이는 동남아시아 섬들, 인도, 중국, 한국에 걸쳐 널리 퍼져있는 종(種)이다. 그래서 호랑이는 아시아, 특히 서구 관점에서 본 아시아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티프로 활용되어왔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영국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호랑이 사냥이 이뤄졌는데, 이는 식민국의 강하고 남성적인 형상을 만들어 원주민을 위축시키기 위함이었다.[27] 또한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Four Asian Tigers는 통칭

24) 진덕규, 『한국의 민족주의론』, 지식산업사, 2021, 225-232면.

25) Lee, "Travelling Films," p.61.

26) 이와 비슷하게 레이 초우는 '원시적'이라고 생각되는 서발턴, 여성, 아동 등을 포착함으로써 중국 근대 문학이 '근대화'되었다고 말한다.(레이 초우, 앞의 책, 43면.) 그들을 포착함으로써 한 오리엔탈 사회 내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의 이분화 독법을 답습한 응시자('민족')와 전시되는 자('원시적 타자')가 분리된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급속한 산업화를 이뤄낸, 즉 서양의 경제성장 모델을 적용할 수 없는 아시아의 네 국가(남한, 싱가포르, 태국, 홍콩)를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 내에서 호랑이는 으레 우리 민족의 역사로 비유되곤 하지만, 그것이 세계를 대상으로 할 때는 한국이 아닌 아시아, 특히 제국주의의 우열 질서에 저항하는 동양성으로 그 의미가 단순해진다. 이 지점에서 볼 때 서양권 매체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물론, 국내에서 활용되는 호랑이 모티프 또한 (셀프) 오리엔탈리즘의 영향 아래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시베리아 호랑이가 공식적으로 한반도에서 멸종되었다는 뉴스와 연결되며 정호의 사형은 일제강점기 이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거대담론의 영향으로 이어진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해방된 제3세계에 대한 서술의 전형성을 보인다. 해방 이후와 전쟁기에 한반도 내의 민족이 주도적으로 행한 남북협상이나 그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며 독립 이후 한국의 역사적 배경에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냉전 체제만이 존재하게 된다.[28] 오로지 서양의 시선에 익숙한 남북의 분단상황, 공산주의 적대시가 독립 직후와 연결됨으로써 '피식민국의 저항성'으로서 "호랑이"는 냉전 체제 속 피억압자라는 '비극성'의 기호로 재활용된다.

이에 대해 김정배는 냉전 체제에서 제3세계가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노선-미국과 소련의 노선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 중립주의, 민족주의, 새로운 형태의 사회민주주의 등-을 지향하였으나 외부 강대국에 의해 그 의지가 좌절되었다고 설명한다.[29] 그에 따르면 미국과 소련은 '세

27) Robert B. Marks, "Asian Tigers: The Real, the Symbolic, the Commodity," *Nature and Culture* 1, no. 1 (2006): 78. 당시 인도의 호랑이는 원주민들을 위협하였기에 제국에서 온 사냥꾼들은 원주민을 호랑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기대받았다.

28) 한편 '냉전 헤게모니'는 있되, 그 주체인 국가(특히 미국)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시되는데, 이는 4장에서 논의한다.

29) 김정배, 「냉전과 제3세계 - 상호관계와 역사성」,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40,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16, 188면.

계를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책임' 하에 서로 경쟁하면서도 필요에 의해 협력하는 사이였고, 따라서 양극적 대립을 의미하는 냉전 정치는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30] 제3세계의 내부를 꼼꼼히 살피는 작업은 억압자와 피억압자 도식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하지만 『작은 땅의 야수들』은 역사를 선별적으로 소환함으로써 서양 강대국과 대비되는 한국적 특질을 무화하며 냉전 체제의 '중심부-주변부' 도식을 재활용한다.

자크 랑시에르는 톨스토이 문학을 독해하며 문학이 역사학(거대 서사)과 어떻게 갈라지는지 설명한다. 문학은 '역사학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되는 권력과 역량들의 결합을 통해 필연적으로 살아가는 대중들'과의 분리를 시도한다.[31] 이를 위해 문학의 글쓰기는 체험되지 않고 자취뿐인 삶들로써 '체험된 것의 특질들'로 구성된 전기와 구별된다.[32] 이때 "필연적으로 살아가는 대중"과 "체험된 것"이 거시권력을 중심으로 마련된 역사를 의미한다면, "문학"으로서 "체험되지 않고 자취뿐인 삶들"은 그러한 역사의 사이에 숨은 복수태의 미시 서사를 가리킨다. 즉, 문학은 세계를 당연하다는 듯이 갈랐던 중심부와 주변부의 이분화 도식, 그리고 이로 인한 국가와 민족 중심의 서술을 무너뜨려야 한다.

독재정권의 공산주의 탄압을 다루는 문학은 우리나라에서 국제정치적 이데올로기 대립 이상의, '무엇이 국가를 형성하는가'라는 민족적 성찰을 불러올 수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민족 정체성을 재고하며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한국 내부의 셀프 오리엔탈리즘 구도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서발턴 개인의 미시 서사에서 시작해 점차 피식민지의 거시 역사를 말하는 이 소설은 남정호라는 공산주의자의 서사를 필요에 따라 선별한다. 따라서 영미권의 시선에서 보는 "호랑이"는

30) 위의 글, 182면.
31)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역,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11, 119면.
32) 위의 책, 269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체험된 것”-서구의 시선에 익숙한 제국주의와 피식민지, 그리고 냉전 주체와 제3세계라는 구분-이라는 거시 서사로 왜곡된다.

이 장에서는 작품 속 ‘사람들’이 어떻게 작가의 셀프 오리엔탈리즘적 배치를 통해 구성되는지를 정호와 그의 공산주의자 정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호랑이”는 본래 거대 서사에서 배제된 개개인들을 불러오는 상징체였다. 하지만 영미권 독자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한국이 아닌 보편화된 동양을 상징하고, 따라서 『작은 땅의 야수들』은 상상의 동양 주체를 형성한다는 위험성을 안게 된다. 이때 공산주의자인 정호의 서사는 소거되고, 한국은 맥락과 특수성을 잃은 채 동양의 피식민국으로만 독해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동양 인식에 단일한 민족주의가 따라오며 그를 위해 여러 타자의 이야기가 봉합되어 나타남을 살펴볼 것이다.

3. 단일한 민족성을 위해 포섭되는 여성 타자

정호와 함께 주요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옥희는 일종의 사이 지대에 놓인다는 점에서 그와 공통점을 갖는다. 당초 정호가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이에서 비가시화되었던 개개인을 불러오기 위한 인물이었다면, 옥희는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적 민족주의라는 극단 사이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환기한다. 옥희를 비롯하여 『작은 땅의 야수들』에 대거 등장하는 여성들 대다수는 기생이다. 전통적으로 기생은 가장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인(藝人)으로서 양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성 집단이었다. 하지만 1908년 기생단속령과 창기단속령이 발포되며 기생들은 의무적으로 기생조합 소속원이 되어 경치성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규제 아래에 놓였다.[33] 이는 일제강점기 이후 기생이 현재의 일반적인 인식과 같이 성적으로 저급한 인상을 갖는 데 주된 역할을 했다.

억압받는 타자를 재해석하며 김주혜는 정호와 마찬가지로 역사에서 비가시화된 자들의 목소리를 표현하고자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기생의 인물 설정과 한국에서 기생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질문을 받고 “well-educated”(잘 교육받은), “strong-willed”(의지가 강한), “self-expression”(자기 표현력이 강한), “people”(사람들, 민중)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했다.[34] 이에 더해 그는 기생의 외양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인(藝人)으로서의 능력치와 이를 활용한 운명 개척, 그리고 다양화된 개개인의 특성에 주목한다.[35] 여기서 그가 독립운동에서 기생들의 활약을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한데, 작중 이명보 만큼이나 『작은 땅의 야수들』에서 3·1운동의 행위자로 등장하는 것이 ‘단이’를 비롯한 기생들이기 때문이다.

> 이윽고 연기가 걷히는 순간, 야마다는 한 무리의 여자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앞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다. 화려하게 땋은 가체, 값비싼 의복, 그리고 최신 유행으로 화장한 얼굴을 보니 기생들이 틀림없었다.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이토 쪽을 바라봤지만, 이토마저 순간 말문을 잃은 상태였다. 야마다는 손을 들고 외쳤다. “중지!”
>
> 동시에 이토가 명령했다. “사격!”
>
> 군인들은 잠시 머뭇거렸으나 이토가 명령을 되풀이하자 다시 총탄을 장전하기 시작했다. 기생들은 물러나지 않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서 서로 맞잡은 손을 더욱 굳게 쥘 뿐이었다. 분칠한 얼굴에 아무렇게나 얼

33) 황미연, 「일제강점기 기생의 사회적 활동과 그 역사적 의미」, 『민속학연구』 28, 국립민속박물관, 2011, 139면.

34) Elissa Nadworny, “In 'Beasts of a Little Land,' a portrait of Korea's quest for independence”, npr, 12-26, 2021.(열람일: 2025.11.09.), https://www.npr.org/2021/12/26/1068160198/in-beasts-of-a-little-land-a-portrait-of-korea-s-quest-for-independence.

35) Shelby Hinte, “Q&A with Juhea Kim: ‘Beasts of a Little Land’ & Suffering in the Name of Love”, ZYZZYVA, 02-03, 2022.(열람일: 2025.11.09.), https://www.zyzzyva.org/2022/02/03/qa-with-juhea-kim-beasts-of-a-little-land-suffering-in-the-name-of-love/.

> 룩진 눈물 자국, 울음으로 거칠어진 목소리, 그리고 퉁퉁 부어오른 입술은 남자를 유혹하는 매력적인 자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심지어 여자로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그 지치고 흐트러진 형상이 야마다에게는 오히려 매우 여성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다.[36]

위의 인용은 3·1운동에서 기생들이 자신들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외양을 포기하면서까지 일제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기생들의 우두머리"로 등장하는 단이는 운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권번의 행수들을 설득하여 수익 일부를 3·1운동 전후의 기획을 위해 조달한다. 이때 그가 말하는 "예인으로서의 명예"(182)는 비록 기생들이 돈을 버는 방식을 사람들이 멸시하더라도 그것이 대의를 위한 거사에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단이뿐만 아니라 은실도 꾸준히 국외의 독립운동을 금전적으로 지지한 것을 볼 때 김주혜가 기생 인물을 등장시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억압받는 여성들을 역사 속으로 불러오기 위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기생은 삼중 이상의 억압을 견뎌야 했는데, 이는 일본-조선, 남성-여성, 그리고 순결여성-비(非)순결여성의 대립항으로 요약된다.[37] 따라서 기생은 '일제강점기의 이득을 본 매춘부' 혹은 '일제로 인해 가치가 폄하된 여성 계급' 등의 단일한 해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김주혜가 기생을 3·1운동의 행위자로 묘사한 것은 앞선 인터뷰에서 언급한 '다양화된 개개인'으로서의 "people"을 보여준다. 실제로 3·1운동 당시 33명의 기생이 소복을 입고 저항한 기록이 남아 있고, 권번 기생들은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독립운동 세력에 의연금을 기부하기도 했다.[38] 한편, 기생의 정체성을 독립운동가로 고착시키는 것 또한 기생을 단편적 민족주의

36) 김주혜, 앞의 책, 201-202면.
37) 김은정,「일제강점기 여성 이미지의 시각화 - 기생과 여급을 중심으로」,『세계문학비교연구』39, 세계문학비교학회, 2012, 17-20면.
38) 황미연, 앞의 글, 149면.

담론으로 해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위의 인용에서 야마다가 기생에게 느끼는 "여성적인 느낌"("the very fact that they were so undone made them feel so female")[39]이 이 근거가 되는데, 앞장의 논의와 연결해보자면 기생이 가진 '피식민지의 저항성'이 식민국의 남성성과 대비되는 여성성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옥희를 통해 완화될 가능성을 보인다. 옥희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거나 직접 그것에 개입하는 인물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일제에 마냥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식민주의, 그리고 독립운동으로만 강조되는 탈식민주의적 민족주의를 모두 빗겨나간다. 대신 그는 정호와 한철, 이토 등 여러 인물과의 장면을 통해 거대한 역사 속 미시 서사를 직조한다. 김주혜는 옥희를 통해 더욱 다양화된 "people"을 보여주고자 했다. 정호와 마찬가지로 그 또한 당초 의도된 "호랑이"로서 모습을 드러낼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 남성과 대비하여 옥희가 형상화되는 방식은 오히려 '민족'이라는 표지를 위해 여성의 수동성이 동원되는 것에 가깝다.

옥희와 일본인 이토와의 관계는 그가 옥희의 분장실로 찾아오는 장면에서 명백히 그려진다. 이토는 "네가 하는 공연 같은 거 볼 생각 전혀 없어."(295)라고 말하며 무리하게 성적 행위를 이어가고, 옥희는 이에 저항한다. 하야시가 월향을 강간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때 일본인 남성은 식민지, 조선인 여성은 피식민지의 상징이 되며 일본인 남성의 성적 욕망은 민족성에 대한 모독으로 독해된다. 여성들은 식민지 통치 체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집과 가정 공간을 전통적 가치이자 '민족'이라는 정치성을 수호하는 자로 인식되어 현재의 필요를 위해 과거로부터 불려오곤 했다.[40] 이들의 관계는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을 더 극적으로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기생을 성적 피해자라는 수동적이고 비극적인 민족성으로 고착

39) Juhea Kim, *Beasts of a Little Land*(New York: HarperCollins, 2021), p.128.

40) 로버트 J. C. 영, 김용규 역, 『아래로부터의 포스트식민주의』, 현암사, 2013, 144면.

화한다. 이 때문에 "호랑이"는 이들의 관계에서 다시금 '피식민지의 저항성'으로 독해되며, 옥희라는 인물은 저항(민족주의)과 수동성(식민주의)의 극단을 오고 가며 단순화된다.

한철과 정호라는 조선의 남성들 앞에서 옥희는 피식민지의 수동성과 비극성으로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인력거꾼이었던 한철은 옥희의 도움을 받아 계급 상승에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한때 돈을 받고 남자들과 동침했던 여자"(412)로 묘사하며 결혼을 거부한다. 마사장과 연화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는 근대의 계급 철폐가 남성에게만 독점적으로 이뤄졌으며 기생이 구조적 성차 권력 속에서 도구화되곤 했다는 지점을 알려준다.[41] 이는 당대 기생이 처한 삼중의 억압 상황과 맞물리면서도 그 복잡한 구도를 피식민지의 비극성, 즉 거대권력 사이의 피해자성으로만 전면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당시 조선 내부에 있었던 남녀차별과 계급차별보다는 기생들의 비극적인 생활이 작품 중후반부의 주요 플롯이기 때문이다. 정호와 옥희의 관계를 보여주는 다음 인용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 "Why did it not want to hurt your father?"
>
> "My father always thought the tiger was my mother, reborn."
>
> [...]
>
> "I don't know if that's true—it's just what he believed, that she loved him so much that even in another life she wanted to protect him. Because, Jade, everything is inyeon in this world. It's true what they say, even brushing the hem of one's coat on the streets is inyeon. But the most important inyeon of all is that between

41) '민족'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여성은 근대성과 대립적 실체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 결과 민족 해방의 목표는 여성을 위한 진보적 변화의 가능성(조혼, 여성 할례 관습 금지 등)을 배반하곤 했다.(위의 책, 같은 면.)

husband and wife. That's what I regret… that I didn't get to be with you." […]

"I'm sorry… I regret it too," Jade said, wiping at her stinging nose.[42](강조는 인용자)

"호랑이는 왜 아버님을 해치려 하지 않았던 걸까?"

"아버지는 늘 그 호랑이가 환생한 우리 어머니였을 거라고 생각하셨어."

(중략)

"그게 과연 맞는 말인지는 나도 몰라……. 그냥 아버지 당신께서 그렇게 믿고 싶어셨던 거겠지.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삶을 살면서도 그분을 지켜주려 하셨던 거라고. 왜냐면, 옥희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이니까. 길거리에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을 하잖아.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깊은 인연은 백년가약을 맺는 부부의 연이겠지.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인생에서 제일 아쉽고 후회스럽게 생각하는 점이야……. 이번 생에서 너랑 그런 인연이 되지 못했다는 거." (중략)

"미안해……. 나도 지금 와서야 후회가 돼.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옥희가 따끔따끔한 코끝을 훔치며 말했다.[43](강조는 인용자)

1964년에 간첩으로 잡힌 정호와 그를 면회하러 온 옥희의 대화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을 엿볼 수 있다. 앞 장에서 논했던 것과 같이 전쟁기 이후의 정호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거대담론에 휩싸이게 된 제3세계 민족의 수동성을 강조하는 데 활용된다. 위 장면이 문제적인 이유는 옥희가 독립 직전 정호의 고백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동성, 비극성의

42) Kim, *Beasts of a Little Land,* p.380.

43) 김주혜, 앞의 책, 576-577면.

기호를 담고 있을 때 갑작스레 그 둘의 사랑이 작품의 주제로 급부상한다는 것이다.[44] 인용 장면 바로 앞의 상황이 옥희가 한철과 만나 서로 사랑하던 시기를 떠올리던 장면이었기에 위 대화의 위화감은 더욱 커진다.

"호랑이"를 '사랑하는 상대와의 끝나지 않는 인연'으로 보는 위의 장면은 정호의 비극적 죽음 이후에 그의 상징성과 유지가 옥희에게 이어질 것을 암시한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부터 기생이 받았던 모든 성적, 계급적, 민족적 차별은 민족주의적으로 왜곡된 "호랑이"의 비극으로 수렴하게 된다. 마치 위의 인용에서 "호랑이"가 '가족을 구하는 모성', '저항적인 민족', '비극적 민족'의 여러 차원으로 나타나면서도 민족 담론이라는 명백한 하나의 도달점을 향하듯이 말이다. 특히 영어 원작은 인연을 "inyeon"으로, 폰트까지 달리 표기하며 이들에게서 보이는 동양 특유의 정서를 낭만화한다. 이것은 당시 타자를 향한 차별이 한민족 내부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의 핵심을 외재화 한다는 혐의를 갖는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민족의 핵심적 정체성을 여성성에 대한 이상화된 가부장적 이미지와 겹치게 함으로써 사실상 실제 여성의 민족적 지위를 박탈한다.[45] 사랑과 희생의 명목하에 이뤄지는 기생들의 탈(脫)민족화는 그들의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번역본에서 옥희, 연화, 월향, 은실로 번역된 기생의 이름은 원서에서 Jade, Lotus, Luna, Silver로 등장했다. 이는 '호랑이(虎, 호)'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남정호(Nam JungHo), 그리고 작중 주요한 위치에 있는 조선인 남성의 명보(MyungBo), 성수(SungSoo), 한철(HanChol)이라는 한국의 근대적인 이름과 명확히 구별된다. 레이 초우가 중국 근대작가들을 들어 설명하듯이, 여성과 서발턴을 '원시적'으로 간주하며 만들어지는 '근대적 민족'은 서구와도 같은 응시 권력을 가지는 한편, 그 자신들의 문화의 시원성(기원으

44) 원래 김주혜가 고안한 책의 제목은 *Love and Time*(『사랑과 시간』)이었으나, 서양권 편집자로부터 현재의 제목을 제안받았다.

45) 로버트 J. C. 영, 앞의 책, 100면.

로 묘사되는 여성, 서발턴)을 들어 근대국가가 될 근거를 찾는다.[46] 비록 김주혜는 순우리말 이름을 상상하며 여성 인물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하였지만,[47] 남성 인물과 여성 인물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근대성와 원시성(자연성)의 차이는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젠더 위계적 오리엔탈리즘의 시야와 겹쳐진다.

작품 후반부에 기생들은 죽음 혹은 도피로써 민족의 비극성을 극대화한다. 기생으로서의 유명세와 독립운동을 지지했다는 명예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죽은 단이(Dani), 미국으로 떠난 월향(Luna)과 연화(Lotus)에게 "people"의 자리는 주어지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기생이 3·1운동 이후 참여한 여러 독립운동 지원, 물산장려운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육체는 다만 차별적으로 명명되며 그들의 화려한 의복과 그를 향한 폭력으로 재현될 따름이다. 게다가 정호를 계승하여 제주로 간 옥희(Jade)는 민족성 자체가 되어 타자의 서사를 봉합한다는 역설을 보인다. 정호가 처형된 후 그는 서울을 떠나서 제주로 가 "서월 할망"으로 불리며 물질을 하고 살게 된다. 제주 4·3이라는 국가 폭력을 전부 들어낸 "1965년", 서울에서 온 "민족"의 문화 전유는 명백히 타자의 영역을 침범하고 낭만화한 것이다. 결국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층적인 폭력을 무시하며 옥희와 정호의 기억은 작품의 마지막까지 '저항성'과 '비극성'의 셀프 오리엔탈리즘 서사에 편입되고 만다.

이 장에서는 기생으로 대표되는 조선 내부의 타자들이 부여받은 서사 속 역할과 그 실제 활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기생의 자유 의지와 자기표현, 그리고 사회적 운동 참여에도 불구하고 작중 기생은 성적, 계급적, 민족적 차별을 받는다. 그들과 얽힌 복잡한 억압과 조선 내부의 문제는 피식민지와 식민지의 관계로 일원화된 채 기생은 민족의 '저항성'과 '비극성'

46) 레이 초우, 앞의 책, 44-46면.

47) 신연선, "김주혜 "정말 인정받고 싶었던 분들은 한국의 독자들"", 『채널예스』, 게재일: 2022.10.31.(열람일: 2025.10.31.), https://ch.yes24.com/Article/Details/51962.

을 보여주는 대상으로 가치가 하락한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자 정호가 '민족의 영웅'과 '민족의 비극'을 독립 전후의 서사적 효과로 보인다면, 기생들이 겪은 다층적 억압은 정호가 다듬은 동양 민족의 전형화를 강조하는 형식으로 압축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동양 민족이 형성되는 요인을 일본과 미국이라는 외세의 (비)형상화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4. 은폐되는 외세(外勢)와 세계 속의 한국

『작은 땅의 야수들』에서 김주혜가 '타자들로서의 호랑이'를 극대화하는 부분은 작중 초반부의 3·1운동이다.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이 사건은 당시 지휘관으로 있던 이토의 잔학함을 강조하며 그를 식민지 일본의 대표적인 인물로 놓는 데 한몫했다. 하지만 1919년에서 1945년으로 흘러갈수록 당시 일본이 조선인에게 저질렀던 악행, 차별적 대우, 그리고 강제되었던 비인륜적 제도 등은 그것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강도를 더해갔음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에서는 후경화된다. 이때 유심히 봐야 할 지점이 바로 일본인 남성 인물의 행적 은폐인데, 1944년에 옥희와 이토가 우연히 만나는 다음 장면에서 이를 의심해볼 수 있다.

> "나한테 감사할 건 없고, 그냥 내가 했던 충고나 기억해. 난 이번 금요일에 떠나니까 아마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거겠지……. 빌어먹을 전쟁도, 외로움 같은 것도 다 엿이나 먹으라고 해. 계속 살아남아."
>
> 옥희는 다음 순간 이토가 자신을 끌어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는 그저 자리에 가만히 앉아 서늘한 미소만 머금을 뿐이었다. 옥희는 그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창살 안에 갇힌 호랑이를 독살하는 걸 즐기지 않듯이. 이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취향의 문제였다. 옥희는 당황해서 붉어진 얼굴을 감추기 위해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차에서 내렸다.[48]

독립 직전 극한의 궁핍에 빠진 옥희가 이토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한 뒤 그와 나누는 대화에서 이토는 일본의 패망을 예견한 뒤 독살당하는 창경궁 호랑이의 가죽이라도 취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낸다. 이때 "창살 안에 갇힌 호랑이"(515)는 저항력을 잃어버린 옥희를 비유하는데, 그런 옥희를 강제적으로 취하는 데에 흥미를 느끼는 대신 이토는 그에게 저녁을 사고 돈과 청자 화병을 건넨다. 언뜻 보면 이토가 옥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은 1940년대 일제강점기를 사는 조선인들을 여성성으로 치환하여 그 비극성을 보여주는 한편, 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식민국 주체의 남성성을 이토 개인으로부터 분리한다.

조선 반도가 일본 제국에 점령당한 후 조선은 계속 "창살 안"에서 독립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하지만 위의 대사에서 이토는 자신을 '호랑이를 창살에 넣은 식민지 일본'에서 떨어뜨리고, 따라서 피식민지 사람들을 학살하던 3·1운동 당시 일본군 장교로서의 "원칙"("principle")과 현재의 이토 개인의 "취향"("taste")[49]은 갈라진다. 그렇기에 이토는 마치 옥희와 자신의 관계가 피식민지와 식민지의 관계에서 벗어난 평범한 남녀의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 살아남아"라는 모순적인 말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한때 일본 제국 자체를 상징했던 인물이 그 상징물에서 벗어나며 '민족의 저항성'은 마치 외세의 침략이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동양 피식민지의 특징인 것처럼 독해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특징은 오리엔탈리즘에서 동양의 신비화로 형성되는데, 관련하여 독립 직전 시기에 일본인 남성 인물이 조선인을 묘사하는 다음의 인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용1〉

"We were hunting and we got lost. I found your father in the woods. He was so weak to make it down on his own, but I gave him my food

48) 김주혜, 앞의 책, 514-515면.

49) Kim, *Beasts of a Little Land,* p.339.

and he recovered. Later on, when we were making our way down… A tiger tried to attack us, but your father somehow drove it away. He had nothing—no weapons, just his bare hands. I still don't understand how he did it."

[…] "You shold leave now. Good luck." Yamada opened the door and stood aside. JungHo stumbled to his feet and left the office, not even knowing the exit out of the building but slouching like an animal toward the hint of fresh air and the way to freedom.[50](강조는 인용자)

"30여 년 전 나와 동료 장교들이 산속에서 사냥하다 길을 잃은 적이 있어. 그때 내가 숲에서 네 아버지를 발견했다. 너무 쇠약해져 혼자서는 내려갈 수 없는 상태였지만 내 음식을 나눠 먹고 기운을 회복했지. 그러곤 우리가 다 같이 산에서 내려가는 길에…… 호랑이 한 마리가 우리를 덮치려 했는데, 네 아버지가 놀랍게도 그 호랑이를 그냥 쫓아 보냈어. 무기는커녕 아무것도 없이, 그저 맨손으로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아직도 잘 모른다."

(중략) "넌 당장 떠나야 해. 행운을 빈다." 야마다가 문을 열고 옆으로 비켜섰다. 정호는 비틀비틀 일어나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오직 신선한 공기의 자취를 따라 자유로 향하는 길을 필사적으로 추적해 나가는 짐승처럼 잔뜩 웅크린 몸으로 그는 달렸다.[51](강조는 인용자)

〈인용2〉

"The tiger, especially. We don't have any such ferocious beasts in Japan, and we're a far bigger country. How such enormous beasts have flourished in this little land is incomprehensible. I would have loved to hunt one in the wild—but they're almost certainly extinct now."[52](강조는

50) Ibid., pp.332-333.

51) 김주혜, 앞의 책, 504-505면.

인용자)

"호랑이만큼은 정말이지 놓치고 싶지 않아. 일본에는 그처럼 사나운 맹수가 없거든. 영토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더 큰 나라인데도 말이야. 이 작은 땅에서 어떻게 그리도 거대한 야수들이 번성할 수 있었는지 신비로울 따름이야. 야생에서도 직접 한 마리 사냥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제 조선의 호랑이들은 거의 확실히 멸종했다고 봐야지."[53](강조는 인용자)

위의 야마다와 이토의 발언을 살펴보면 조선인/호랑이를 대하는 낭만화의 태도가 드러난다. 〈인용1〉에서 야마다는 눈밭에서 호랑이를 쫓은 정호의 아버지에게 부채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그는 유일하게 전쟁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일본군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의 계기가 피식민지민의 '신비로운 능력'이라는 점은 다분히 오리엔탈리즘적이다. 이는 기존에 '동양'과 동치 관계를 이뤘던 "후진적, 퇴행적, 비문명적, 정체적이라는 여러 가지 호칭"을[54]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인용2〉에서 이토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자의 형상을 보여주며 야수를 사냥하려 한다. 중요한 것은 그가 피식민지의 상징을 인정할 때 신비로움과 미개함(원시성), 자연이 그 키워드가 된다는 점이다. 위의 인용에서 배경과 인물의 이름을 영국과 인도로 바꾸면 위의 맥락이 19세기 인도로 느껴지듯이, 제국주의자들의 '인정'은 한국을 '동양'의 '저항성'과 '신비로움'의 관점에서 봐주었으면 한다는 능동적인 수동성, 그리고 그 토대를 이루는 (서양과 구분되는) 동양의 전경화를 통해 나타난다.

이때 전경화되는 '동양'은 서양과 동양 사이에 있던 차별의 역사를 약

52) Kim, *Beasts of a Little Land,* p.338.
53) 김주혜, 앞의 책, 513면.
54) 에드워드 사이드, 앞의 책, 358면.

화하고, 앞선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양 민족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층적 관계 또한 일원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작품 속의 일본 순사, 정호, 옥희가 한 장면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점과도 상통한다.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정호의 서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일본군 장교와 수동적 피식민지민인 옥희의 관계, 그리고 '저항성'의 표지를 가진 정호와 '수동성'을 보여주는 옥희의 관계가 동원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 인물이 한 장면에 등장하는 순간 억압자와 피억압자, 그리고 근대적 민족과 원시적 타자의 일대일대응은 입체적으로 변한다. 이를 막기 위해 '서양에 보이는 것을 의식하는 동양'을 바라보는 서양은 구체화된 국가 혹은 세력으로 등장하기보다는 이미 그 도식 바깥의 관음증적 시선으로서 등장한다. 위의 '신비로운 동양, 한국'은 일제의 억압이라는 역사적인 아픔과 동떨어져 상상적인 동양 국가, 서구의 시선에 익숙한 동양 국가로 스스로를 재기술한다.

이를 전제할 때『작은 땅의 야수들』에서 미국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문제시된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미국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상대이다. 이는 민족자결주의 선언으로 3·1운동의 계기를 만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일본인인 야마다와 이토가 국제정세에 대해 말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독립 이전에 나타난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반해 해방과 전쟁기를 건너뛴 이후의 역사에서 한반도의 분단과 반공(反共)에 관련한 미국의 영향력은 존재하나 마치 그러지 않는 것처럼 묘사된다. "일본이 항복했을 때, 태평양에서부터 북상하던 미국군과 만주에서부터 남하하던 소련군은 마침내 작은 반도에서 만났고 북위 38도 지점에 서둘러 경계선을 그었다."(541-542)라고 서술된 남북의 분단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싸움은 부정하지 않되 실제 미국과 소련이란 국가의 존재를 그 속에서 은밀히 분리한다. 간첩 혐의를 받고 처형당한 정호의 결말에서 당시 친미 정권과 미국 헤게모니를 소거하고 순수한 동양의 '비극성'만을 남기듯이 말이다.

외세를 은폐하여 만들어지는 '세계 속의 한국'은 역설적으로 서구 세계

로부터 동떨어진 신비한 동양이 되어 그것을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는 외세의 인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작중 제국주의의 의미를 벗고 '인정하는 개인'으로 거듭난 야마다와 이토는 은폐된 미국의 시선으로 연결된다.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이 후경화되고 마치 한국의 역사 밖에서 '인정하는 개인'인 그들이 나타난 것처럼, 미국은 냉전 체제와 미국 제국주의의 부분을 지운 채 책의 바깥에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렇기에 『작은 땅의 야수들』을 가장 먼저 접할 미국 사회의 독자들은 미국과 관련한, 어쩌면 자국의 과거를 성찰할 수 있는 이국의 서사를 보면서도 그것을 자국과 연관 지어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중심의 세계 시장을 겨냥한 『작은 땅의 야수들』은 이 지점에서 두 가지 번역의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는 '우리'라는 민족이 세계로 번역되어 '인정'을 받기 위한 작품의 창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작품이 한국, 즉 '우리'에게로 다시 번역된 것이다.

세계 시장은 지역적·민족적 문화들의 상호 의존과 대화의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오히려 민족 간의 투쟁의 장으로 변해 편협한 민족주의와 국민문학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55] 유럽 중심주의 문학장의 우월함을 전제로 하여 그것의 인정을 바라는 소수 민족 간의 싸움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중심축이 나타나면서 더욱 격화되었다. 그 속에서 세계에 '우리'를 알리고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필수적인 단계는 번역이었다. 『작은 땅의 야수들』은 한국과 세계를 이분화하여 후자의 인정을 요구한다. 이는 영미권의 헤게모니를 먼저 인정하며 그것의 역사를 파헤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때의 '한국'은 '세계에서 보이는 한국'을 전형화하며 당대의 역사적 사건과 국제적 관계망에서 독립된 '한국'을 만들어내고 만다.

이러한 서구 세계의 '인정'에 대한 욕구는 『작은 땅의 야수들』의 두 번

55) 김용규, 「세계문학과 로컬의 문화 번역」, 김경연·김용규 편, 『세계문학의 가장자리에서』, 현암사, 2014, 47-48면.

째 번역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작품의 국내 출판과 관련하여 김주혜의 야스나야 폴라냐 상 수상의 보도 방식에서는 '세계'와 '우리'를 양분화하는 것이 포착된다. 국내에서 톨스토이 문학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 상의 원래 이름은 Yasnaya Polyana Literary Award이다. 이는 2003년부터 Yasnaya Polyana(러시아 문학자의 집 박물관, 레오 톨스토이 박물관)와 삼성 그룹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수상 대상은 전통 러시아 스타일을 준수한 러시아 문학, 혹은 번역 문학 작품이다. 김주혜의 수상 이전에는 분명 본래의 이름으로 불리던 이 상은 『작은 땅의 야수들』을 소개하면서부터 급격하게 '톨스토이 문학상'으로 언급되었는데, 이는 톨스토이라는 대문호의 이름을 '세계문학'으로 보아 '우리 문학'을 그 대등한 위치에 놓겠다는 의도로 읽힌다.[56] 하지만 민족주의를 강조한 작품이 그리는 '우리', '한국'과 실재하는 한국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유발한 서구 세계에 대한 인지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국은 결코 세계의 대치어가 될 수 없다.

관련하여 프랑코 모레티는 현재의 세계문학이 두 가지 의미가 뒤섞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것은 각각 18세기 이전의 '지역 문화들의 모자이크', 그리고 18세기 이후의 '국제적 문학 시장의 통일성'으로 대응된다.[57] 이 중 두 번째 의미에서 김주혜의 『작은 땅의 야수들』은 이미 세계문학이다. 이 작품은 한국의 역사를 다루면서도 역사의 선택적 배치와 인물들의 민족주의적 형상화로 인해 보편적인 피식민지 서사로 읽히고 만다. 한편 프랑코 모레티는 이 두 가지 세계문학이 '오늘날의 유일하게 타당한 문학으로서 현재의 문학'을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역사의 재사유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58] 다시 말해 시대가 용인하고 옹호하는 문학은 때에 따

56) 관련하여 서승희는 해외 언론이 호랑이의 상징과 함께 '연애', '로맨틱', '친밀함' 등을 언급한 것과 달리 한국 언론이 유독 '민족혼'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서승희, 앞의 글, 184면.)

57) 프랑코 모레티, 김용규 역, 『멀리서 읽기』, 현암사, 2013, 196면.

라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세계문학이라고 불려온 것, 정전이라고 칭송되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각기 차별화되는 지점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은폐되는 서구(세계)의 시선, 그리고 그것을 용인하는 '우리'의 자세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품 안팎으로 '우리', '한국'과 대비되었던 '일본', '미국', '러시아', '서양'이 뭉뚱그려 인정 주체인 '세계'로 호명되었던 것을 다시 살피며 우리가 각국과의 개별적 관계보다도 이분법적인 '세계'와 '우리'의 도식에 갇혀있었던 것은 아닐지 점검이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번역의 의미와 역할을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번역은 세계의 '인정'을 통해 한국문학을 세계문학의 자리로 이동시키는 도구가 아닌, 오히려 한국과 세계라는 경계에 대한 성찰이다. 레이 초우는 장 라플랑슈를 인용하며 '번역되는 것과 번역자'를 넘어선 '제3항'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제3항은 서양의 '원시적 타자'(서양이 타자화한 동양)들도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권력배분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들의 내부에서 지배와 위계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59] 동양을 타자화하는 서양 매체의 영향을 인지하고, 그곳에서 재생산되는 식민주의와 민족주의의 이분화 구도를 넘어서야만 '우리 문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 지대가 열릴 것이다.

관련하여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이민진의 『파친코』가 서구에서 독해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오영록의 글은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된다. 그는 두 작품이 서구의 시선에서 볼 때 문명과 비문명의 이분화된 서사로 인식됨을 들며 '서구가 추구하는 담론에 의해 한국문학이 시혜를 받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주장한다.[60] 이러한 지적은 작품 해석에 있어 국

58) 위의 책, 197면.

59) 레이 초우, 앞의 책, 289-290면.

60) 오영록, 「현대소설에 나타난 담론의 발현과 (탈)식민주의적 양상 - 국제적 문학상 수상 및 후보작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62-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47면.

제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한국이 인식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용인하였으며 또 이를 어떻게 해체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환기한다. 이를 위해서는 번역 담론에서 영어 등 거대 언어와 그 언어 사용 주체의 세계적 영향력을 인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세계'로 일원화되었던 복수(複數)의 관계를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계 이민자 문학은 한국이 세계에 번역되고, 그러한 한국이 다시 한국으로 번역되어 들어오는 방식으로써 '우리'의 경계를 흔든다. 다만 이때의 번역은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맞춰 '우리'를 재설정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작은 땅의 야수들』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일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틀을 변화시켜 '인정' 구도 이상의 관계를 인식하게 만든다. 세계문학과 '우리 문학' 양자는 우열구도에서 벗어나 언어의 사이에 역사와 문화의 만남을 만들고, 그 다층적 양상을 모두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일방향적 오리엔탈리즘과 셀프 오리엔탈리즘 모두에서 벗어남으로써 김주혜의 "호랑이", "people"을 세계 속에서 발견하는 길이 될 것이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한국계 미국 작가 김주혜의『작은 땅의 야수들』에 나타난 셀프 오리엔탈리즘의 민족의식을 살펴보았다. 또 이를 세계 시장, 세계문학에서 나타난 한국인 정체성으로 확장하여 '우리 문학'이 세계문학과 만들어나가야 할 관계에 대해 논하였다.『작은 땅의 야수들』은 '한국계 이주민 작가가 서술한 한국의 근현대사'라는 지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한국'이 서구 중심적인 시선에서 재단되어 피식민지 동양의 보편적 이미지가 될 위험성을 가진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공산주의자와 기생 옥희의 서사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들은 본디 민족주의와 공

산주의,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의 사이에 존재하는 개인들로서 거시 역사에는 기술되지 않은 미시역사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공산주의자가 피식민지 동양의 저항성과 비극성을 고취하기 위해 평면화되고, 기생들이 당시 받던 다층적 차별이 단일한 민족 서사를 위해 봉합되면서 조선의 인물들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역사에 기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셀프 오리엔탈리즘적 민족의식의 기반이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시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하는 관습은 세계문학과 세계 시장이라는 전통적인 우열의 장에서도 이어진다. 세계와 '우리'의 대립적인 도식은 세계를 표방하는 서구가 부여함과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강제한 것이다. 따라서 『작은 땅의 야수들』의 내외에서 이루어진 번역은 우리로 하여금 고정적인 민족 정체성과 '우리 문학'이라고 불러왔던 것의 경계를 의심하게 만든다. 이는 상상의 동양, 그것과 대립하는 상상의 세계 대신 한국의 역사 속에 있는 타국과의 복합적 관계를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국내와 세계의 관계가 이전에 없이 빠르게 쌓이고 이와 동시에 오리엔탈리즘과 셀프 오리엔탈리즘, 민족주의의 위험성도 크게 늘었지만, 한편으로 이는 기회로도 작용한다. 다양한 관계망을 살펴보며 재고되는 문학은 상호작용적 비판과 성찰의 결과로써 비가시화되어왔던 타자를 위한 장소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내부의 셀프 오리엔탈리즘적 재현을 발견하는 작업은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거론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경계하는 일은 아니다. 오히려 국제상 수상(受賞), 그리고 인식된다는 것 자체는 '단일한 세계문학'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체제를 해체하는 시작점이 된다. 그러니 『작은 땅의 야수들』에 비판이 가해져야 한다면 그것은 작품 내부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한국문학의 세계화' 담론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성찰로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이미 고착화된 한국의 정체성-서구에 의해 인정받는 민족-을 전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주혜가 말하는 본인의 '한국인 정체성'

은 세계와의 이원론으로 구성된 '우리'와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이를 인지하며 김주혜의 셀프 오리엔탈리즘적 작품을 독해하는 일은 '우리 문학'을 '서양에 보이는 한국'이 아닌 제3의 공간으로 이동시킨다. 그리하여 '한국적인 것'을 해체하며 동시에 '세계문학'을 해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문학의 세계화' 담론이 지향해야 할 길이다.

과거의 디아스포라 문학과 이주민 문학은 강제 이주와 그로 인한 이방인의 비애가 주로 서사화되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그들 문학은 더 이상 일방향적인 권력의 행사와 폭력으로 논해질 수 없다. 그것은 망으로 연결된 세계의 복층적 구조 내에서 비(非)국민과 이주민 등이 형성해나가는 정체성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들의 정체성은 국내의 '우리'로 포섭되어서는 안 되지만, 또 그것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다. 21세기 현대는 개인이 물리적 이동과 함께 인터넷 속의 이동에 있어 자유를 보장받는 시대이며 이로 인해 한국 내부에만 존재한다고 생각된 '우리'는 실질적으로 언제나 세계와의 관계 속에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문학은 타자로서의 한국, 타자로서의 '우리'에 대한 보다 확장된 담론의 장을 열어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김주혜, 박소현 역, 『작은 땅의 야수들』, 다산북스, 2022.

Kim, Juhea. *Beasts of a Little Land*. New York: HarperCollins, 2021.

2. 단행본

고부응, 『초민족 시대의 민족 정체성』, 문학과지성사, 2002.

김경연·김용규 편, 『세계문학의 가장자리에서』, 현암사, 2014.

진덕규, 『한국의 민족주의론』, 지식산업사, 2021.

레이 초우, 정재서 역, 『원시적 열정』, 이산, 2004.

로버트 J. C. 영, 김용규 역, 『아래로부터의 포스트식민주의』, 현암사, 2013.

에드워드 W. 사이드,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9.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역,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11.

프랑코 모레티, 김용규 역, 『멀리서 읽기』, 현암사, 2013.

3. 논문

고봉준, 「하위주체의 서사 전략과 역사 다시 쓰기 - 이민진의 『파친코』와 김주혜의 『작은 땅의 야수들』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31-2, 국제비교한국학회, 47-79면.

김유순, 「미주·유럽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김은정, 「일제강점기 여성 이미지의 시각화 - 기생과 여급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39, 세계문학비교학회, 2012, 5-27면.

김정배, 「냉전과 제3세계 – 상호관계와 역사성」,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40,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16, 177-202면.

노대원, 「한국문학의 세계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 세계라는 타자와의 대화를 위하여」, 『우리말 글』 71, 우리말글학회, 2016, 411-434면.

담바에바 예브게니아, 「한국 디아스포라 문학의 세계화 가능성 - 『작은 땅의 야수들』의 러시아 수용과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문화』 38,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25, 29-50면.

박래은, 「 『작은 땅의 야수들』 에 나타난 한반도 서사와 무위(無爲)의 공동체」, 『국제한인문학연구』 38, 국제한인문학회, 2024, 45-73면.

박정애, 「디아스포라 작가의 소설에서 호랑이 메타포의 활용 양상 - 태 켈러, 『호랑

이를 덫에 가두면』과 김주혜, 『작은 땅의 야수들』을 중심으로」,『구비문학연구』71, 한국구비문학회, 2023, 41-80면.

서승희,「멜로드라마로 다시 쓴 한국 근대사 – 김주혜의『작은 땅의 야수들』에 나타난 서사 전략 연구」,『한국문학이론과 비평』107,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5, 177-204면.

손혜숙,「김주혜의『작은 땅의 야수들』에 나타난 모빌리티 양상 연구」,『어문논집』103, 중앙어문학회, 2025, 161-186면.

오영록,「현대소설에 나타난 담론의 발현과 (탈)식민주의적 양상 - 국제적 문학상 수상 및 후보작을 중심으로」,『인문학연구』62-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29-52면.

장희동,「역사와 개인 - 『작은 땅의 야수들』에서의 물질 서사」,『현대영미어문학』42-4, 현대영미어문학회, 2024, 87-103면.

조미숙,「작은 땅의 야수들』에 나타난 역사소설 서사전략 연구 -『역사는 흐른다』와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101,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5, 299-325면.

황미연,「일제강점기 기생의 사회적 활동과 그 역사적 의미」,『민속학연구』28, 국립민속박물관, 2011, 135-156면.

Lee, Ji-Yeon. “Travelling Films: Western Criticism, Labelling Practice and Self-Orientalised East Asian Films.” PhD diss.,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2005.

Marks, Robert B. “Asian Tigers: The Real, the Symbolic, the Commodity.” *Nature and Culture* 1, no. 1 (2006): 63-87.

4. 기타자료

박지영, “한국계 미국 작가 김주혜,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한겨레신문』, 게재일: 2024.10.13.(열람일: 2025.10.3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2214.html.

신연선, “김주혜 “정말 인정받고 싶었던 분들은 한국의 독자들””,『채널예스』, 게재일: 2022.10.31.(열람일: 2025.10.31.), https://ch.yes24.com/Article/Details/51962.

이은정, “김주혜 “제2의 파친코 영광이지만, 나라 위한 투쟁 소설이죠””,『연합뉴스』, 2022.09.28.(게재일: 2025.10.30.),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8131800005.

“톨스토이문학상 김주혜 "영어로 썼지만, 난 언제나 한국작가였다"”, 유튜브 비디오, 30분 26초, “CBS 김현정의 뉴스쇼”, 게시일: 2024.12.20.(열람일: 2025.10.30.),

https://www.youtube.com/watch?v=LNr4d7-7hMY&t=688s.

Hinte, Shelby. “Q&A with Juhea Kim: ‘Beasts of a Little Land’ & Suffering in the Name of Love”. ZYZZYVA. 02-03, 2022.(열람일: 2025.11.09.). https://www.zyzzyva.org/2022/02/03/qa-with-juhea-kim-beasts-of-a-little-land-suffering-in-the-name-of-love/.

Nadworny, Elissa. “In 'Beasts of a Little Land,' a portrait of Korea's quest for independence”. npr. 12-26, 2021.(열람일: 2025.11.09.). https://www.npr.org/2021/12/26/1068160198/in-beasts-of-a-little-land-a-portrait-of-korea-s-quest-for-independence.

<Abstract>

Self-Orientalising Nationalism in *Beasts of a Little Land* by Juhea Kim

Kim, Yoon-Hee · Seo, Se-Rim

This paper analyses the self-Orientalising nationalism depicted in Juhea Kim's novel *Beasts of a little Land*. Hav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stretching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Park Chung-Hee regime, this novel primarily shows the lives of Jade, a gisaeng(courtesan), and JungHo, a communist. As the novel highlights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the tiger in Korean history, previous studies have interpreted the work with keywords such as subaltern micro-history, historical narrative strategies, and the tiger metaphor.

Meanwhile, the fact that Kim selectively employs Korean history to convey themes of the intimate loves of individuals invites a more critical reading. Although Kim explicitly states that the novel is not intended as an instructive work meant to teach Korean history to Western readers, the images of "the invaded Oriental", "the resistant Oriental" and "the mysterious Oriental" render the narrative susceptible to the charge that it reorganises Korean history into a plot structure familiar to Western readers. In particular, the notion of "the invaded Oriental" is presented without fully exposing—or gradually obscuring—the agents of such invasion(imperialist states), suggesting that the novel performs self-Orientalism.

This paper examines how individual narratives in *Beasts of a little Land* are mobilised in service of macro-historical narrative and

nationalism, concerning the text through the lens of “the Oriental that desires to be seen by the West.” In that way, this work critiques the novel’s flattening of history into images of Oriental passivity and resistance, and proposes a more multilayered approach to understanding “Korea in the world.” Such an approach holds significance in an era of diasporic literatures and the literature of “translated Korea,” prompting a reconsideration of “we” and “the nation.”

Key words: Juhea Kim, *Beasts of a Little Land*, Self-Orientalism, Nationalism, Postcolonialism, Korean Literature in the World, Translation, World Literature

투 고 일 : 2025년 11월 10일 심 사 일 : 2025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5년 12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5년 12월 28일